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4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황 은 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대해 학사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조사결과가 제국주의의 논리로 이용된 점에 대한 개괄적인 비판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대 들어 일제강점기 조사의 해석과 인식을 한국고고학의 전사(前史)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고고학사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일제강점기 고고학 조사활동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고적조사가 낙랑, 가야, 신라 등 주로 고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선사시대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는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역의 ‘석기시대(石器時代)’ 유적을 처음으로 본격 조사했던 인물이다. 이후 ‘석기시대(石器時代)’, 즉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그의 인식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주요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반도 전역을 다년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련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아 조사내용 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그의 회고록이나 조사 당시 인류학회에 보낸 통신, 논문 등에 보이는 단편적인 기록들조차 조사시기와 지역, 조사회수 등에 차이를 보여 연구자들 간에도 그의 행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조사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한반도 고적조사의 생생한 현장기록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진판은 그런 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 제국주의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

일본 시코쿠(四國)의 도쿠시마(德島)에서 태어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는 소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동경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을 이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을 조사하고 인류학, 고고학, 민족학 등 방대한 자료를

남겼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인류학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특히, 야외 조사 시 당시로서는 선진적 조사방법인 카메라를 처음 도입하여 수많은 유리건판을 남긴 점은 그의 개척가적인 면모를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도리이의 공식적인 학력은 소학교 2학년 중퇴가 전부였다. 그는 독학으로 일본의 고고학 및 인류학을 접하고 당시 일본에 갓 설립된 인류학 연구모임인 「동경인류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이 때 동경인류학회의 창립 멤버이자 동경제국대학 인류학강좌 교수인 츠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와의 인연으로, 동경제국대학 인류학교실 표본정리 담당으로 근무하며 본격적인 조사연구를 시작한다.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인류학의 출현 및 발전과정은 식민지 경영과정과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식민지를 확보하면 인류학회 차원에서 조사자를 파견하여 식민지로 개척한 지역들을 탐사하고, 식민지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1895년 도리이는 「동경인류학회」의 파견으로 요동반도로 처음 현지조사를 나가게 된다. 이후 그는 일본은 물론 대만, 중국, 내몽고, 한반도, 사할린, 동부 시베리아를 비롯하여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도리이는 그 어떤 학자보다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의 조사지역과 조사시기를 살펴보면,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편승하여 일본군 진출 후 그들을 쫓아 조사지로 들어가고, 일본 군부의 편의를 제공받아 해당 지역의 고고·인류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으로 일본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시베리아 출병에 대해서도 그는 ‘이 좋은 기회에 그 지역의 탐험조사를 하고 불충분하긴 하지만 상당한 결과까지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출병은 인류학, 인종학 및 고고학에 대해 귀중한 기여를 한 것으로 깊이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서인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측면의 조사가 아니라 연구 욕심의 발로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나, 그는 학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2.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배경

만주와 몽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리이가 한반도 조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만나면서이다. 몽고 조사에서 돌아와 『世界』라는 잡지에 「蒙古旅行」을 게재하던 도리이는 이 잡지의 발행인인 니노미야 도쿠지로(二宮德次郎)로부터 조선 조사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 데라우치와 친분이 두터웠던 니노미야는 당시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탐험 열풍을 보고 조선에서도 이러한 조사를 기대하며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다.

1910년 여름, 데라우치를 만난 도리이는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고적조사, 석기시대 조사, 조선인 생체 측정’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는다. 이 때 인천측후소 소장이 도리이를 찾아와 인천에서 채집한 마제석부 1점을 보여준다. 그 당시까지 한반도에는 석기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야기 소자부로(八木藏三郎)의 견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도리이는 이전 만주 조사를 통해 한반도에 석기시대가 존재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며, 측후소 소장이 가져온 마제석부는 이번 조사가 자신의 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당시 일본에서는 코로보쿠루-아이누설로 대표되는 일본민족의 기원과 선사시대의 원시문화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도리이는 현재 일본인의 조상이 한반도를 통해 일본 열도로 건너갔을 것으로 보고 한반도에서 그 물적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교과서 편찬을 위한 한국의 고고학·인류학 자료 수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한국을 식민지화한 우월한 ‘일본민족의 기원 찾기’라는 도리이의 한반도 석기시대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3.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 유리건판

1896년 대만 조사부터 카메라를 휴대하기 시작한 도리이는 수많은 유리건판을 남겼다. 당시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 등 주변 여러 나라에서도 야외조사 시 사진 촬영은 극히 드물었다. 숙련된 촬영기술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기가 대형이라 짐의 부피가 커지고, 유리로 된 건판은 깨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상당한 정도의 매수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리이가 국내외 조사를 실시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전반은 격변의 시대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기록한 도리이의 인류학·민족학적 사진자료는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도리이의 한반도 조사기록은 19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32년까지 확인된다. 조사협의를 위해 방한한 1910년과 1932년 그의 두 자녀와 단독으로 실시한 고려(高麗)시대의 자료조사¹⁾를 제외하면, 그는 야외조사 시 항상 전문 사진기사를 동행하여 사진기록을 남겼다. 1911년 1회 사료조사만 고향 도쿠시마의 사진원으로 활동하던 이노우에 타츠조우(井上達三)가 동행하였으며, 이후 모든 조사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사업의 촬영기사로 활약했던 사와 슌이치(澤俊一)가 함께 하였다.

1) 1932년 조사는 문부성의 요청으로 홍보영화 촬영 지도 차 만주에 왔다가, 그가 중년 이후 관심을 갖게 된 요(遼) 문화와의 비교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의 두 자녀와 단독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그는 수기(手記)에서 ‘고고학 상 고려조의 문화를 보기 위해 고려의 고도 개성을 중심으로 그 부근 일대를 조사하고 경성으로 나아가 이왕가박물관과 총독부박물관의 고려시대 유물을 조사, 촬영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고도 경주를 방문하여, 경주박물관과 경주 일대 신라유적, 유물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에도 조사 사진기록을 남겼지만 개인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박물관 건판 중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사진촬영은 아들 龍次郎이 담당하였다.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를 통해 파악한 도리이 류조 조사 당시 촬영 유리건판 수량과 그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수량은 <표1>과 같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38,000여 장의 유리건판 중 약 10%에 가까운 유리건판이 도리이에 의해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조사연도 | | 촬영기사 | 유리건판(매) | | 비고(촬영매수) |
|------|-------|------|--------------------|------------------|------------------------------|
| | | | 촬영 | 확인 ²⁾ | |
| 1회 | 1911년 | 井上達三 | 955 ³⁾ | 881 | 대판(115), 소판(582), 명함판(258) |
| 2회 | 1912년 | 澤俊一 | 506 | 499 | 대판(78), 소판(428) |
| 3회 | 1914년 | 澤俊一 | 639 | 618 | 소판(639) |
| 4회 | 1914년 | 澤俊一 | 327 | 323 | 소판(327) |
| 5회 | 1915년 | 澤俊一 | 621 | 616 | 소판(621) |
| 6회 | 1916년 | 澤俊一 | 367 | 366 | 소판(367) |
| 7회 | 1917년 | 澤俊一 | 232 | 232 | 소판(232) |
| 8회 | 1920년 | 澤俊一 | 109 | 106 | 소판(109) |
| 9회 | 1923년 | 澤俊一 | (37) ⁴⁾ | 37 | 소판(37) |
| 합계 | | | 3,793 | 3,678 | 대판(193), 소판(3,342), 명함판(258) |

<표1. 도리이 류조 조사 유리건판 현황>

그는 1회 사료조사에서는 사절판(四切判), 중판(中判), 수찰(手札) 3종류의 건판으로, 2회 조사에서는 사절판과 중판 2종류, 3회 조사 이후에는 중판 1종류로만 촬영하였는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의 크기 분류(김영민 2007)로 보면, 사절판은 대판(건판크기 252×303mm), 중판은 소판(건판크기 119×164mm), 수찰은 명함판(건판크기 82×107mm)에 해당한다.

- 2)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제출한 목록에는 1매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는 건판 중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진들에 세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예를 들어 23004-1, 23004-2)도 있어, 이는 목록에 준하여 1매로 산정하였다.
- 3) 도리이가 제출한 1회 사료조사 사진원판목록에는 총 961개의 연번이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6개의 결번이 있어 실제 제출한 수량은 955매로 보인다.
- 4) 1923년 조사 당시 촬영한 유리건판 목록이나 수량 관련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공문서에 나타난 조사지역을 토대로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목록집 I』(1997)에서 해당 자료로 추정되는 유리건판의 수량을 표기하였다.

3회 조사 이후에는 소판만 사용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리건판 중 소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6%로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소판의 규격이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와 선사시대 인식

<표2>는 도리이 류조의 수기(手記)와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제출한 유리건판 목록 및 관련 공문서, 유리건판 화상면 주변부에 기록된 날짜 등으로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과 같은 그의 조사여정을 추적해 본 것이다.

|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조사내용 | 관련기록 |
|----|--|-----------------------------|---|--|
| 예비 | 1910.여름 | | 寺內총독 면담, 조사협의 | 『ある老學徒の手記』 |
| 1회 | 1911.09.08.~1912.03.06. | 함경남북도 간도 | -石器時代유적 조사 · 종성 동관진 · 경흥 서수라, 웅기 등 -고구려·여진 유적 조사 | 『第一回史料調査報告』 『第一回~第五回史料調査寫眞原板目錄』 |
| 2회 | 1912.10.21.~1913.03.04. | 평안북도 만주 | -고구려유적 조사 | 『史料調査第二回報告』 『第一回~第五回史料調査寫眞原板目錄』 |
| 3회 | (1914.01.15.~1914.03.28.) (1914.04.18.~1914.05.05.) | 경상남북도 | -石器時代유적 조사 -함안·고성·창녕 고분 조사 -창녕 진흥왕 적경비 발견 -김해패총 조사 -경주 월성 패총 조사 | 『第一回~第五回史料調査寫眞原板目錄』 |
| 4회 | (1914.05.12.~1914.07.21.) | 제주도 전라남도 | -지석묘 조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화순 운주사 조사 | 『第一回~第五回史料調査寫眞原板目錄』 |
| 5회 | 1915.08.~1915.11. |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 -石器時代유적 조사 · 부여 가흥리 석관묘 조사 · 춘천 천전리 지석묘 조사 -춘천 문정리 적석총 조사 | 『第一回~第五回史料調査寫眞原板目錄』 『朝鮮ニ於ケル博物館事業ト古蹟調査事業史』 |
| 6회 | 1916.09.28.~1916.12.23. | 평안남도 황해도 | -石器時代유적 조사 · 평양 미림리 조사 · 용강 용반리패총 조사 |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書』 |

| | | | | |
|-----|-------------------------|----------------------|--|--|
| | | 경기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연 몽금포패총 조사 · 황해도 지식묘 조사 -용강군 일대 고분 조사 | 『第六回史料調査寫眞目錄』 |
| 7회 | 1917.10.24.~1918.01.14. | 경상남북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石器時代유적 조사 -경주 월성 성벽 조사 -대구 달성 성벽 조사 -고성패총 조사 -김해패총 조사 | 『大正七年度復命書』 |
| 8회 | 1920. | 간도 함경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石器時代유적 조사 · 종성 동관진 · 경흥 서수라 · 웅기 송평동, 용수동 패총 | 『大正九年度古蹟調査寫眞原板目錄』 |
| 9회 | 1923.7월말~1923.8월 | 평안북도 부산 제주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石器時代유적 조사 · 의주, 용천 방면 조사 · 부산 암남동패총 조사 · 제주 삼양동 | 『古蹟調査委員會-第十七回~第二十回』, 『第二十回古蹟調査委員會』, 『大正十二年度古蹟調査事務報告』 |
| 10회 | 1932.7.~1932.8. | 만주 개성 서울 경주 | -고려시대 유적, 유물 조사 | 『ある老學徒の手記』 |

〈표2.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 현황〉

도리이 류조의 방한 기록은 총 11회에 걸쳐 확인된다. 그 중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 촉탁으로 1~5회 사료조사를 실시하며,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개관하고 고적조사위원회가 설치된 1916년 이후부터는 고적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1923년 조선총독부의 재정긴축으로 고적조사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폭넓은 조사보다는 소규모 고적조사사업에 주력하게 되고, 특히 식민지배 논리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만을 집중 조사하게 되면서 10여 년에 걸친 도리이 류조의 유사이전(有史以前) 조사도 일단락을 짓게 된다.

그런데 매회 3개월에서 종종 반년 이상에 걸쳐 한반도를 집중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도리이의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는

조선총독부의 보고서 분실 사건과 당시 관학파와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이상의 조사에 대해 제1회 보고를 학무과에 제출했는데, 동(同)과에서 분실의 재앙을 만나게 되어 그 이후 다소 느끼는 바가 있어 보고서 제출을 미루다가 겨우 제5회 조사보고는 제출하였다. ...(중략)...나의 최초의 목적인 조선에 있어 석기시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본의 죠평식 석기시대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이 확실하고, 오히려 일본의 야요이식 계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서 마지막 회 조사 이후 곧바로 총독부의 촉탁이 해지되고, 쿠로이다(黑板) 박사 및 동서대학 여러 전문가들의 일이 되어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역사·고고학 업무가 주어지고 그 외의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관학학자(官學學者) 유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총결론을 내지 못하고 말았다.” (『ある老學徒の手記』 중)

이와 같이 도리이의 한반도 석기시대 조사는 미완인 채로 끝나버렸지만, 그가 발표한 여러 논문에서 한반도 석기시대에 대한 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도리이는 한반도 석기시대를 두 종류의 토기형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집단의 차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석기시대라는 동시대에 기벽이 얇고 문양이 거의 없는 토기-무문토기-를 사용하는 집단과 기벽이 두껍고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된 토기-즐문토기-를 사용하는 집단이 존재하였고, 무문토기는 주로 산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수렵생활을 영위한 집단이며, 즐문토기는 주로 해안 또는 도서지방에 위치하며 패총을 남긴 것으로 보아 어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았던 집단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한반도 석기시대는 일본 선조의 석기시대-야요이식 계통-와 매우 닮아있으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로 석기, 그 중에서도 석부와 반월형석도를 들고 있다.

당시 도리이는 일본의 석기시대를 토착민인 아이누-조몽토기 사용집단-의 석기시대와 ‘고유일본인(固有日本人)’ 즉 현재 일본인 선조-야요이토기 사용집단-의 석기시대로 나누어 보았는데, 우월한 현재 일본인의 기원은 미개한 토착민과는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선사문화에서 시기적인 차이-줄문토기와 무문토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야요이토기 사용집단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선인(日鮮人)은 민족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별개로 독립할 이유가 없다’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논리로 이용된다.

<참고문헌>

鳥居龍藏, 1953, 『ある老學徒の手記 考古學とともに六十年光』, 朝日新聞社

도리이 류조 지음 · 최석영 역주, 2007, 『인류학자와 일본의 식민지 통치』, 서경문화사

이순자, 2009,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강인욱, 2008, 『日帝強占期 咸鏡北道 先史時代 유적의 조사와 인식』, 『韓國上古史學報』 61

강인욱, 2010, 『鳥居龍藏으로 본 일제강점기 한국 선사시대에 대한 이해』,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石器時代’의 조사와 인식』, 『先史와 古代』 제33호

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금석병용기’에 대한 일고찰』, 『韓國上古史學報』 68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 회차 | 일자 | 주제 | 강사 | 소속 |
|----|-------|-------------------------------|-----|---------------------|
| 1 | 3.23.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 이순자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
| 2 | 3.30. |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 권강미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 3 | 4.6.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 김영민 |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
| 4 | 4.20. |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 장은정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
| 5 | 4.27. |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 박진일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 6 | 5.4. | 일제강점기 가야지역 고적조사사업 | 김수환 |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
| 7 | 5.11. |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 정인성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 8 | 5.18. | 백제 지역의 고적조사사업 | 이병호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
| 9 | 5.25. |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 황은순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 10 | 6.1. |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 이기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
| 11 | 6.8. |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 이영식 |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
| 12 | 6.15. | 답사(백제문화권) | 윤용희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 13 | 6.22. |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 김현희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